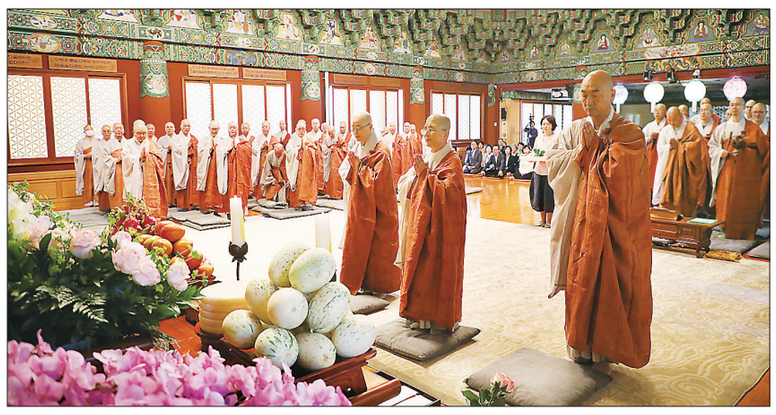
“대행 선사 가르침 따라 정진하겠습니다”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열반 14주기 다례재

5월 17일 안양본원서 봉행
국내외 지원 2000명 참석해
법산 스님, 추모시 보내오기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왼쪽부터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이사장 혜수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사부대중을 대표해 헌다·헌향·헌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4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참석 대중은 선사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수행의 길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5월 17일 안양본원 5층 대법당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본원 및 국내외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방송으로도 함께 진행됐다.

사시예불을 시작으로 봉행된 다례재는 사부대중의 마음을 대표해 헌다·헌향·헌화를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올리며 선사를 추모했다. 이어 신현준 안양본원 신도회장, 박종수 명예신도회장과 지원 신도회장, 임원들도 각령전에 헌화하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대행 선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돌아보는 추모영상이 상영됐다. ‘지금, 길을 묻는 이에게’를 주제로 제작된 추모영상은 수행에 대한 열정으로 선사에게 길을 물었던 이들의 이야기와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의 길로 이끌고자 했던 선사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삶의 무게를 안고 선사를 찾았던 이들이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이어가며 변화해온 과정이 조명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 수행자들에게도 수행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고 정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께 수없이 길을 물으며 공부해 온 대중들의 모습이 오늘 영상에 잘 담겨 있었다”며 “그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정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행 선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부대중 모두가 그 가르침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례재에 앞서 BTN불교TV 회장 무봉 성우 대종사는 아침 일찍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을 찾아 헌향한 뒤 대행 선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문도들에게 전했다.

또한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는 올해도 대행 선사 열반 14주기를 맞아 추모시를 보내와 대행 선사를 추모했다. 법산 스님은 추모시를 통해 “보이지 않지만 그윽한 미소 눈앞에 선하고 들리지 않으나 청명한 법음 잔잔하게 스며납니다”라고 대행 선사를 그리며 “바로 여기 묘용의 진공에 올리는 감로다 음향하시고 함께하는 대중들이 다 같이 반야의 미소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전쟁 멈추길” 중동 평화 기원 빗속 ‘108배’

사노위, 5월 20일 미 대사관 앞
전쟁 규탄 · 세계평화 함께 발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를 주제로 중동 평화 기원 108배를 봉행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석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주한미국대사관 앞을 가득 메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와 참여연대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를 주제로 중동 평화 기원 108배를 봉행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한 배 한 배 정성껏 절을 올리며 조속한 전쟁 종식을 발원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미국·이란 전쟁은 올해 2월 26일 시작된 후 중동 전역으로 확산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고 있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공격으로 미나브 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이 희생됐으며, 이스라엘과 레바논까지 번진 전쟁으로 3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108배는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미국·이란 전쟁을 규탄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노위 소속 스님 7명을 비롯한 20여 명의 참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포화 속에 떨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 절합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이 땅에서 완전히 멈추기를 염원하며 절합니다”, “중동의 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깊이 깨달으며 절합니다”, “총성 대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중동 하늘에 가득 퍼지길 바라며 절합니다” 등 성찰과 추모, 규탄과 멈춤, 연대, 서원과 회향 등 4개를 주제로 한 108가지 염원에 맞춰 절을 올렸다.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과 침략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무자비한 폭격으로 희생된 분들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이 사죄하고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과 오만함이 낳은 야만적 침탈 역사는 사라져야 한다”며 “미국은 손쉽게 살생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

108배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봉축등 ‘보현사 탑등’을 향해 묵언행진을 진행했다. 또 “당장 전쟁을 멈춰라”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지구촌의 상생을 기원했다.

이현희 수습기자

태고종 “5·18, 민주주의 바로 세운 항거”

제46주년 기념일 맞아 추모사
불교 종단 중 유일…희생자 추모
“오월 정신, 국민통합으로 계승”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민주영령들을 기리는 추모사를 발표했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추모사를 발표한 것은 태고종이 유일하다.

태고종은 5월 18일 대변인 구암 스님 명의로 발표한 추모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단지 한 지역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운 위대한 국민적 항거였다”면서 “피와 눈물로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양심이자 민주주의의 등불로 남아 있다”고 기렸다.

이어 “불교에서는 ‘인과는 숨길 수 없고, 진실은 끝내 드러난다’고 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성찰, 그리고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온전히 드러날 때 비로소 국민적 치유와 화합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월의 정신을 갈등과 분열의 언어가 아닌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 태고종은 “자비와 화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통합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민주영령과 유공자 여러분께 결코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마음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추모하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추모했다.

신중일 기자

무산문화대상 정수자·서도호·문화사업단


정수자


서도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6월 9일 웨스틴 조선서 시상식

재단법인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가 제정·시행하는 ‘제3회 무산문화대상’의 올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무산문화대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신달자)는 “‘제3회 무산문화대상’ 수상자로 문학 부문에 정수자 시조시인, 예술 부문에 서도호 설치미술가, 사회문화 부문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문학 부문 수상자인 정수자 시인에 대해 “한국 시조를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혁신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와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 독자들에게 삶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믿음직한 위안을 건네 왔다”고 평가했다.

예술 부문 수상자인 서도호 설치미술가에 대해서는 “동시대 미술 지형에서 차지하는 독창적 위치에 더해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의 폭을 넓혀 한국 미술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서 드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회문화 부문 수상단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대해서는 “2004년 설립 이후 한국전통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격 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제3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은 6월 9일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매년 5~6월 속초에서 열리는 ‘설악무산문화축전’과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 시상식에서는 2025년 설악무산문화축전 전국어린이합창대회 대상팀과 전국청소년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 대상팀의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Korean Buddhism Culture Expo 2026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
축제의 장
50% 할인예매
할인예매 안내 | 1일권 : ~~10,000원~~ ➡ 5,000원 (50% 할인)
할인예매 기간 | 2026.5.1.(금) ~ 선착순 20,000명 접수 후 마감
환불 안내 | 100% 환불 기간 : 2026.5.27.(수) 18:00 까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매 방법 | ❶ 위 QR코드를 통해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홈페이지 접속 ❷ 홈페이지 상단 [참가 접수] ➡ [할인예매] 클릭 ❸ 할인예매 신청서 작성 후, 결제하면 예매 완료!
기타 문의 | 서울 사무국 02.2231.2013 | 대구 사무국 053.427.5114 bexpo@daum.net (문의 가능 시간: 10:00 ~ 18:00)
대구 EXCO 동관 전시장 4홀
2026.6.11. 목 6.14. 일
주최 불교신문 BBS 대구불교방송
기획·운영 MIND DESIGN